

넥스트윈도우, 급증하는 글로벌 터치 PC 및 모니터 시장 위해 생산 확대

- 아시아 생산 기지의 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 능력을 2 배로 늘려 -

2010 년 3 월 25 일, 서울 - 데스크탑 PC, 모니터 및 대형 디스플레이용 광학 터치스크린 제공업체인 넥스트윈도우(지사장: 김용선)는 아시아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터치스크린 생산 능력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넥스트윈도우는 최근 열 응착, 글루 디스펜싱, 큐어링(curing), 조립 및 터치스크린 셋업 등의 공정 개선에 이어 생산 공정의 전자동화, 장비/테스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등을 통해 생산 능력을 2 배로 확대했다.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는 터치 PC 수요가 2010 년에 6 백만 대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뱅크는 터치스크린 패널 시장 규모가 2009 년의 24 억 5 천만 달러에서 2010 년에 36 억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넥스트윈도우의 터치 스크린은 델, 휴렛팩커드, 레노버, 메디언, NEC 와 소니 등 전 세계의 대형 전자기기 기업들의 제품에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여타 기업들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 넥스트윈도우는 지난 한 해의 경우 주 7 일, 일 24 시간의 공장 가동을 통해 12 초 마다 한 대 꼴로 터치 스크린을 생산했다.

터치 PC 및 모니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넥스트윈도우는 이러한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대처하기로 했다.

넥스트윈도우 CEO 알 몬로(Al Monro)는 “당사는 업계의 수요에 발맞추어 생산량을 신속히 확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터치기술은 데스크탑 컴퓨팅 환경에 흥미 있는 요소를 다시 살리고 있다. 작년 10 월 윈도우 7 의 출시와 더불어 시작된 이러한 요소는 소비자들과 데스크탑 PC 및 모니터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PC 생산업체들은 신제품으로 이러한 시장 욕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생산 능력도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중이다. 당사는 지속적인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기존의 고성능, 저단가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생산량을 성공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넥스트윈도우에 관하여

넥스트윈도우는 터치스크린 기술의 선두업체로 OEM, ODM과 리셀러들에게 광학 멀티터치 스크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용으로 설계된, 매우 정확하면서도 경제적인 솔루션을 보유한 넥스트윈도우는 소프트웨어 설계자들이 자유롭게 흥미롭고 사용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환경을 제공합니다. 2000 년에 설립된 넥스트윈도우는 아시아에 제조 설비를 갖추었으며, 뉴질랜드, 대만, 미국 및 싱가포르와 한국에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넥스트윈도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nextwindow.com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문의

넥스트윈도우 한국지사

김용선 지사장

이메일: YKim@nextwindow.com

전 화: 010-5351-2543

홍보대행사

세미컴 고영순 대리

이메일: ally@semicomm.co.kr

전 화: 02-3473-6369